

# 대장동 핵심 키워드, 어마어마한 ‘범죄수익’…檢 “철저히 환수”

### 몰수·추징 관련 법률·조항 적극 적용 분석 조우형·곽상도에게는 자금세탁 혐의 적용

최근 대장동 수사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범죄수익’이라는 평가다.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법률을 적극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수익의 추적과 박탈, 자금세탁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은 5개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다. 부패재산몰수법, 불법정치자금법, 마약거래방지법, 공무원범죄몰수법 등도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특정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 혹은 추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021년 12월 전면 개정 전에는 대상 범죄를 나열했지만,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에 해당하는 범죄는 중대범죄로 보는 기준이 규정으로 변경됐다. 일부 범죄는 나열식 조항도 포함돼 있어 혼합식 형태를 취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특정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또 자금세탁범죄를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 기능도 있다.

최근 검찰은 전화동인 6호 실소유자로 조사된 조우형씨에게 ‘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대장동 지분 7%를 배정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조현성 변호사 명의의 전화동인 6호로 받았다면 자금세탁이 성립할 수 있다는 의심이다.

자금세탁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

가장행위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사실 가장행위 ▲특정범죄 조장 및 적법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의 은닉행위 ▲범죄수익 등의 수수행위로 나뉜다.

쉽게 말해 범행에 차명계좌나 대포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하거나 범죄에 가담하고 그 대가를 차명계좌 등으로 받으면 자금세탁 혐의가 성립한다는 뜻이다.

곽상도 전 의원 부자도 비슷한 구조로 자금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무마(알선수제)와 국회의원 지위 이용 특혜(뇌물) 대가로 받은 50억원을 아들 병재씨의 퇴직금 및 성과급 명목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자금세탁범죄로 유죄를 선고할 경우 몰수 혹은 추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몰수는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다만 자금세탁은 범죄수익을 전제로 한다. 조씨의 경우 전화동인6호에 배당된 282억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곽 전 의원의 경우 병재씨가 받은 25억원(50억원에서 세금 등 공제)이 알선의 대가 혹은 뇌물인지가 먼저 규명돼야 한다.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경우도 유사하다. 박 전 특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이 ‘금융회사 임직원’ 지위에서 청탁을 받고 금품 수수를 약속 받았다는 혐의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아래서 특검보를 맡았던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20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같은 법의 필요적 몰수·추징 조항이 적용된다. 검찰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업자에게 이해충돌방지법(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정형이 배임보다 낮지만, 입증은 비교적 수월하

다고 한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은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자들에게는 기존 배임 혐의 외에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고, 위례신도시 사업에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구성요건은 거의 동일하지만, 범행 시기에 따라 신·구법을 적용한 것이다.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대장동 수익 390억원을 다른 이유를 대고 인출해 숨겨둔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혐의로 김씨를 구속해 별도로 재판에 넘긴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차례 대장동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장동 관련자들에게 대한 대인적 처분(징역형 등 처벌) 외에도 대물적 처분(몰수·추징 등)을 통해 유사 범행의 동기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최이슬기자



**봄맞이 목욕하는 올림픽 조형물**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서 송파구청 관계자들이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올림픽 상징 조형물을 세척하고 있다. 이번 세척은 봄을 맞아 황사 및 초 미세먼지로 인해 쌓였던 먼지와 묵을 때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준공 당시의 색상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 전원 꺼진 오븐 강화유리 폭발...직원 ‘치료 중’

### 오븐 업체 측 “기기 결함 아닌 접시로 쳐서 폭발했다” 주장

인전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전원이 꺼진 상태의 오븐이 폭발해 강화유리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오븐의 강화유리가 폭발하는 사고를 겪었다는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가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9일 발생했다. 빵 굽는 용도로 사용하는 오븐 앞에 직원이 지나가는 순간 ‘퐁’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날리며 터졌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싱크대에서 접시를 집어 들고 오븐 앞을 지나가던 직원의 머리 위로 파편이 쏟아졌다고 한다. 당시 오븐은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

직원은 다행히 모자를 쓰고 있어 크게 다치지 않았다. 다만 사고 이후 눈에 이물감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고 안구에 상처가 났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미세 유리 조각 제거를 위한 안약을 처방받고 치료 중이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OFF’라고 적혀 있는 오븐의 유리가 갑자기 깨지는 모습이 담겼다. 놀란 직원은 움직이지 못하고 오븐만 쳐다보고 있다.

하지만 오븐 업체는 이번 사고가 기기 결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븐 업체 측은 “직원

이 접시로 오븐을 쳐서 폭발했다”고 주장하며 “오븐 뚜껑만 교체해주겠다. 원래는 유상인데 이번만 무상으로 교체해주겠다. 카페 프랜차이즈 미래를 위해 해주는 거다. 다음부터는 조심히 사용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직원은 “접시가 오븐에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직원은 또한 다년간의 제빵 경력에 있는데, 그간 빵을 구우며 철판을 오븐에 부딪힌 적도 있지만 이렇게 유리가 깨진 적은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접시는 오븐 유리와 닿지 않았고, 백반 양보해서 접시가 닿았어도 이게 폭발이지 오븐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수입업체는 사고는커녕 직원의 과실로 돌린다”며 “아무리 자영업자가 ‘을’이지만 자영업자 목숨까지 ‘을’이어야 하나”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오히려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가 우리에게 관찮냐며 오븐을 새로 교환해 준다고 했다.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밝혔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어디 제품이나. 대응이 너무 미흡하다” “자칫하다 직원이 심각하게 다칠 뻔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가 없네” “오븐에 고장 접시가 닿았다고 터지냐”라는 등의 반응을 남겼다. 뉴스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